

정월대보름날 평양의 밤풍경



〈전(연)기(벌)를〉

리명수 폭포

리명수폭포는 량강도 삼지연시 리명수동에 있는 폭포이다.

폭포는 100만년전 백두산에서 분출한 현무암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리명수팔짜기의 오른쪽절벽에 비단필을 드리운듯이 있는데 폭포의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이 물줄기 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이 있다.

기본물줄기들은 쏟아져내려다가 바위턱에 부딪혀 물안개를 일으키며 구슬같은 물방울로 흩어지거나 여러 줄기로 갈라져내리며 그것이 다시 모여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면서 리명수폭포의 인공호수로 떨어진다.

여러가지 모양의 폭포를 축소하여 한곳에 모아놓은 듯한 폭포는 물줄기들 사이에 드러

난 검은 바위, 폭포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 주변의 나무들이 서로 잘 어울려 특이한 경치를 이루고 있으며 철따라 색다른 경치를 보여준다.

봄철에는 진달래꽃,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풍이 폭포와 호수에 어여워 색다른 경치를 나타내며 맑은 날에는 폭포에서 튀어나오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칠색무지개를 이루어 환

호한감을 준다. 겨울철에는 얼음폭포로 변하나 얼지 않은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얼음고드름사이로 흐르는 물도 있다.

특히 땅속에서 흘러나온 물이 찬 대기와 만나 생긴 안개가 주변의 나무들에 붙어서 흰 서리꽃을 피워 이 일대를 서리꽃숲으로 변하게 한다.

이 폭포는 보기 드문 신기한 지하수폭포로서 풍치상의 가치가 있으므로 주제69(1980)년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폭포벽우에는 정자가 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 글자는 병사와 같고 글뜻은 정수와 같다. 글자는 형식이고 글뜻은 사상적내용이라는 뜻으로 글에서 사상이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가리지 않는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에 객관적조건이 좋으나쁨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 글에서 잘되고 못된것은 내게 달렸고 시비하고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있다. 잘못된것은 자기를 탓하며 자기 자랑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겸손하고 허심하라는 것을 이르는 말.

24절기의 하나 우수

우수란 눈석이물이 흐르면서 언 땅을 녹이고 생물들을 소생시키는 봄비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수날 평양지방에서 해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상용시간)은 각각 7시 28분, 18시 18분이고 낮길이는 10.92시간이다.

이날 평양에서 진정오시각은 12시 51분이고 이때의 태양높이는 40.0°이다. 우수날에 들어서면 땅면최고온도뿐 아니라 최고기온도

0°C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날에는 따뜻한 해빛에 언 땅이 녹고 윤기가 흐르며 구수한 흙냄새가 풍긴다.

또한 물기를 담백 머금은 산, 들, 언덕, 골짜기에서 물이 피어오르듯 김이 뿜어지며 더우며 먼산에는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북쪽을 향하며 하늘을 날오는 기러기소리가 들린다.

올해의 우수는 2월 19일이다. 본사기자

음농일것갈소이다. 최서방은 선선히 물건을 받았다.

《내가 잘 간수했다가 줄러이니 넘려말구 다녀오게.》 그가 떠난지 이틀후 한낮이 좀 지났을 때 최서방이 춘득이네 빈집과 한중간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봄철꽃샘바람이 살랑거리는 고개너머쪽으로 달려쳐며 달려오는 연기가 보이었다.



바느질로 꼼꼼히 기워 봉합을 한 질신만한 물건을 내놓으면서 말하였다.

《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 남김 유물인데 이 춘득이한테는 보물이라 할지 가보라 할지... 그런가... 집을 비우고 갈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최서방님께 맡겨야 마

산불이 났나보다 생각하며 급히 고개우에 올라서보니 불은 자기 마을에서, 아니 자기 집에서 나고있었다. 한중간일이라는게 불과 열을 다루는것이어서 불이 나기 쉽기때문에 늘 주의하라 했건만 끝내 일이 나고야 만것이었다.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모란봉의 《기린굴》

모란봉의 천연기념물인 청류벽화나루를 지나 조금 올라가노라면 청류벽에 자리잡고있는 《기린굴》비석을 찾아볼수 있다.

《기린굴》비석은 《기린굴》이라고 한자로 새긴 비석을 대돌우에 올려세운것이다.

비석을 유심히 살펴본데 의하면 크기는 대략 길이 140cm, 높이 50cm, 두께가 20cm정도가 되어있고 대돌은 비석보다는 약간 커 보였다.

오른쪽에서부터 《기린굴》이라고 쓴 한자가, 《기묘 4월 일 개준》이라고 세로 쓴 한자가 있었고 비석은 《기》와 《린》자사가 깨어진 상태에서 대돌우에 놓여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기린굴》비석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반드시 출현한다고 하는 기린은 동양의 환상적인 동물로서 수컷을 기, 암컷을 림이라고 하는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기묘년은 고려조

기인 10세기경으로 보아지며 비석도 그때쯤에 만들어진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인이 말처럼 타고나던 전설의 《기린마》를 가두어두곤 했다는 마구굴간-《기린굴》에 대하여서는 고려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정사인 《고려사》와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기린굴》에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과 관련된것은 전설도 갖들어있는데 이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에는 《기린굴은 구제궁안 부벽루 아래에 있다. 동명왕이 기린마를 이곳에서 길렀는데 후세 사람들이 돌을 세워 표식하였다. 대대로 전해오기를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이 굴에 들어갔다 땅속에서 나와 조천석을 딛고 하늘에 올랐으며 그 말(기린마)의 자국이 지금도 돌우에 남아있다.》라고 서술되어있다고 한다.

림금석실장은 15세기에 편찬된 정사의 기록들에 있는



《기린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건국시조를 잘 모셔야 나라가 무사태평하고 번영할수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수도를 평양의 대성산 안학궁에 옮겨올 때 시조인 동명왕의 무덤을 옮겨온 고구려사람들이 평양성(장안성)에 수도의 중심지를 옮겨올 때에도 그와 관련된 유적들을 모란봉으로 옮겨온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동명왕전설의 하나

인 《기린굴》전설이 생겨나고 그것이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된것은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사람들이 동명왕을 그들의 건국시조왕으로, 조선민족의 큰 성인으로 숭상하고 존대하였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모란봉의 《기린굴》비석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발전에서 선조적역할을 한 고구려의 막강한 지위와 후세에 준 문화적영향을 연구하는데서 참고가 되는 귀중한 역사문화유적이었다. 장수영

누구나 좋아하는 《해바라기》 학용품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해바라기》상표를 단 각종 연필, 지우개, 크레용, 수채화구와 《드림레》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들을 온 나라의 유치원어린이들과 유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원 아이들이 받아안았다.

《해바라기》,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해바라기》상표를 단 학용품들을 좋아한다.

필갑, 연필, 수채화구, 크레용, 색지우개, 지우개, 자, 각종 원주필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호호하고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로 가슴부풀게 한다.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해바라기》 학용품들은 룡봉학용품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용품공장건설을 받기하시

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에 이르기까지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치지 않고 룡봉학용품공장에서 생산되는 필기도구들과 크레용, 필갑을 비롯한 질좋은 학용품들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생산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두뇌를 계속 총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은 뇌를 정상적으로 단련하는것이라고 한다.

◇ 사고하는것 많이 사고하는것은 뇌를 단련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 총명한 사람들은 모두가 머리를 쓰기 좋아하고 부지런히 사고하는 사람들이다.

◇ 듣는것 명목이나 자기가 즐기는 곡을 자주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뇌신경세포의 대사가 빨라져 청각신경의 기능을 단련하는데 리롭다.

◇ 읽는것 책은 지혜의 원천으로서 많이 읽을수록 더 총명해진다. 책을 열심히 읽고 그를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지 심심풀이로 읽어서는 안된다.

◇ 심세한 동작들을 하는것 세밀한 수공로동을 많이 하고 글씨러움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타며 물동체조를 많이 하면 지능수준을 높일수 있다.

◇ 말하는것 사람은 대뇌의 지배하에 말을 하게 된다. 논리성이 강하고 내용이 풍부한 말을 많이 하면 좋다.

◇ 유쾌한 기분 유쾌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면 뇌의 생리적 기능을 높이에 리롭다. 본사기자

철갑상어망파구이

철갑상어는 세계적으로 그 자원이 아주 적으며 고기와 알은 고급식품으로 리용되고 있다.

철갑상어망파구이는 편을 낸 철갑상어에 양파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미료를 두고 밀가루를 묻혀 구워낸 요리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철갑상어고기 200g일 때 양파 100g, 밀가루 20g, 빠다 50g, 생강 10g, 파 30g, 리용술 30g, 소금 3g, 흰후추가루 2g을 준비한다.

철갑상어고기는 편을 내고 파와 생강은 다진다. 철갑상어고

기전에 소금, 리용술, 다진 파와 생강, 흰후추가루를 두고 밀가루를 묻고 구워낸다.

이것을 220°C의 료에 넣어 15분간 구워낸다.

이렇게 하면 고급로리인 철갑상어망파구이가 완성된다.

본사기자



사화

돌칸 한중 (6)

그림 김윤일

한중간이 뜨겁고 시간도 어지간히 흘러서 더 참기 어려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셋세기도 빨라지고 빨리 세는 데도 로리가 있어서 《한가늘, 두가늘, 서이, 너이, 다아, 여, 일구, 여들, 아후, 백이요!》 하고 탁식으로 셋을 세는데 열을 세기가 잠시이고 백을 세기가 잠깐이다.

셋을 세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셋수자가 많고적음으로 시간을 가늠한다.

이날 춘득이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최서방님, 많이 보구 오이다.》

춘득이가 한중간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자 최서방이 불려세웠다.

《이 사람, 한중을 하고나면 뜨끈한 설렁탕이든 단고기죽이든 한그릇 열벌벌하게 먹어야 하네. 이리 오게.》 최서방은 더벅머리총각을 데리고 한중간에 잇달려있는 설렁탕집으로 들어갔다.

《맘을 많이 흘리고난 뒤라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

야 하네. 우리 나라 속담에 불은 불로 끄라는 말도 있지 한중뒤에는 뜨끈한 국물을 훌훌 붙어가며 먹는게 제격일세. 한중마다 설렁탕 한그릇을 청해서 먹고 가게 하였다.

춘득이는 그 후더운 인정이 고마와 최서방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크고작은 한중간일을 다 그에게 물어서 하곤 하였다.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 《한중이 5독을 풀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5독이란 뭇이오이까?》

최서방은 생당숙부리곰팡이에 잎담배를 다져넣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지. 한중이 사람의 몸에서 다섯 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말인데...》

최서방이 담배찌에서 부시게 꺼내어 뒤셔내면 탁탁 치자 빨간 불타가 벵긱벵긱했

다. 불이 당겨어 물물 연기가 피어나는 부시죽을 곰팡이에 담고 뽀뽀 소리를 내며 빨아서 불을 붙인 다음 최서방은 첫 모금을 맛스레 삼켰다가 후- 하고 후련히 내뿜고 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5독이란 꿈은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네만 대체로는 이런걸세. 술을 잘못 먹어서 오는 주독이 첫째요 음식을 잘못 먹은데서 오는 음식독이 둘째일세. 그리고 난봉을 부려서 오는 후과가 셋독인데 셋째이고 지나친 일을 하고나서 오는것이 바로 넷째인 로독이네. 마지막 다섯째가 먼길 걸은 후과인 길독일세. 어쨌든 한중이 사람들의 몸에 생긴 온갖 잡것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좋은 방법이라는것은 명백하네.》

최서방의 사심없는 방조를 받으면서 춘득이는 한중간을 추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 때식을 건느는 날은 가끔 있어도 한중간에 불을 지피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중군이 있건없건 도가니를 덂혔고 한중하러 온 사람들이 빈손이